

# 빈곤여성노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 - 여성노인수급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

장 경 은

(경북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계혈통 중심의 장례절차에 한계를 느끼고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의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 입소, 종교활동)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빈곤여성노인, 죽음의 태도.

## 1. 서 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기약한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삶의 현상으로 노인에게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사망률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노인의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Hookman and Kiyak, 2002: 384). 노인은 병고를 겪거나 노화과정의 결과로 기능적 쇠퇴현상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죽음의 논의는 노인이 자신에게 남아 있는 시간을 인식하여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한다. 노인은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자각을 함으로써 인생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정옥분 역, 1992: 409). 법정(2008: 25-26)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이고,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이라고 했으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라 보았다. 죽음은 한 사람의 삶의 상실로 보고, 그 사람이 사는 동안 맺은 인간관계가 없어지고, 앞으로 맺을 관계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겨 죽음 그 자체를 논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김기태, 1998: 458; 김상우, 2005: 8). 그래서 노인은 죽는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Kastenbaum(1992)는 노인이 죽음보다는 죽어가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한다고 제시하였다(Atchley and Barusch, 2004: 316 재인용). 이는 노인들이 죽게 될 상황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노인은 노후준비의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상당수가 빈곤상황에 처해 있다. 그중에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받는 노인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16.3%이고, 이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34.0%, 남성노인은 16.3%를 차지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 이유는 빈곤여성노인은 노년기 이전부터 축적되어온 성차별, 단절적인 비공식적 노동, 더 긴 수명, 불리한 사회보험급여 등으로 노년기에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최선화, 1999; 박명선, 2002; 최희경, 2005). 또한 65세 이상 사회계층별 만성질환유병률을 살펴보면 1분위의 남성노인은 만성질환유병률이 86.08%인데 반해 같은 분위의 여성노인은 93.01%로 더 높게 나타나(김혜련·강영호·윤강제·김창석, 2004: 147) 빈곤여성노인은 빈곤남성노인에 비해 만성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늙어서 몸이 아프다는 것은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이지영·이가옥, 2004). 빈곤여성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만성질환의 고통과 여생에 대한 불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빈곤여성노인이 죽어가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더 불안하고 불행할 수 있으므로 존엄한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빈곤여성노인이 바람직한 죽음(well-dying) 태도와 그 준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노년기에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18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할 한국사회의 노인집단은 나이가 많다는 동질성보다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성장해 계층별 복지욕구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집단 내에서 계층별 세분화된 죽음 관련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인생의 마지막단계인 노년기에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회고적 성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빈곤여성노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죽음의 태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의 시각으로부터 생생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인식이나 태도를 다루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몇몇 변수들로 구성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연구보다는

죽음이라는 경험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에 대해 사례 수는 적으나 많은 변수를 다루어 빈곤여성노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죽음의 이해와 소통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 2. 문헌고찰

사회의 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죽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죽음에 임하는 태도도 나이에 따라 다양하다. 노년기의 죽음은 다른 생애주기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다. 노년기에는 퇴직, 배우자와의 사별,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쇠약 및 죽음의 압박 등으로 사회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때 죽음도 인식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여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한다.

죽음은 한때 신체적인 사실에만 근거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삶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관계된다(Leming · Dickinson, 2007: 40). 죽음의 의미는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반영되므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Kastenbaum(2007: 45)은 죽음의 의미를 삶을 쇠약하게 하고, 삶의 지속성을 가지게 하고, 영원한 성장이고, 기다림이고, 순환과 재순환이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며, 가상적인 것으로 결코 진정한 죽음은 없다고 하였다.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한 인간이 사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험된다(Leichtenritt and Rettig, 1999; Cicirelli, 2002: 35; Leming and Dickinson, 2007: 47).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한국사회의 문화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태현과 손양숙(1984)은 노년기의 죽음의 의미를 시간의 제약이나 종말, 상실, 형별 등으로 제시하였다. 조명옥(1997)은 참여자들이 인식한 한국 죽음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노인은 죽음의 의미를 형태가 흩어져 존재가 비존재화하는 사건으로 다른 세계로 삶의 장을 이동하는 기점으로 보고, 이 이동은 사후 저승세계로의 전환, 조상세계로의 승격, 묘터로의 수평이동, 전생의 회귀, 후생으로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또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보는 관점을 가졌다. 이은봉(2000: 253)은 무속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죽음관을 육신의 틀을 벗어 던짐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삶과 죽음을 하나의 해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지영 · 이가옥(2004)은 노인은 주변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신체적 노화와 질병이 찾아올 때,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때 죽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히고, 주로 60대와 건강한 70대 노인은 죽음을 '삶의 소멸'로 제시하고, 혼자 살거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낮은 경제수준의 노인들은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나타냈고, 종교적 성향이 강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노인들은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죽음을 인식하면서 '건강에 대한 강한 관심', '마음비우기', '애정의 증가'를 보였고, 60대와 70대의 건강한 노인들은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연령과 건강상태, 신앙심 등에 따라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신미 · 이윤정 · 김순이(2003)는 노인과 성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을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 70

세 이후 사망하는 것,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 1개월 미만의 임종기간, 임종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임종기 동안의 독립성, 죽음에 대한 인지, 유언 남기기, 임종기 동안의 의료비, 통증없는 것, 종교, 호스피스, 무의미한 생명연장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노인이 인식한 '좋은 죽음'은 편안함, 죽음에 대한 준비(유언, 장례준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가족과의 좋은 관계 유지 순으로 중요하다고 제시해, 노인은 '좋은 죽음'의 요소로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김미혜·권금주·임연옥(2004)은 한국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대주제를 복 있는 죽음으로 나타냈고 소주제로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없는 죽음, 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 7개 소주제로 제시하였으며, 한국 노인은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하고, 남은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여, 깨끗하고 고통없이 삶을 마감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은 통증없이 가족과 함께 하되 가족들에게 부담주지 않는 준비된 죽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노년의 생활을 좌우하므로 죽음의 논의는 결국 삶의 논의로 연결된다. 노인들에게 죽음은 지금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므로 중요하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종교, 가치관, 삶의 배경에 따라 다르며, 긍정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경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깊은 내적 신앙심을 가졌거나 철저한 무신론의 입장에서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불안의 원인이 되어 죽음에 대해 매우 강한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김태현, 2007: 309-310).

성별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연구(김태현·손양숙, 1984)에서는 남성이 여성들보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죽음불안이 상대적으로 높다(Klenow and Bolin, 1989, 김지현·민경환, 2010 재인용)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죽음 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서혜경, 1987; 최외선, 2007; 김연숙·김지미, 2009; Depaola, Griffin, Young, and Neimeyer, 2003; Madnawat and Kachhawa, 2007)를 보이는데, 이는 여성이 사회화과정에서 습득한 의존성과 종속성이 죽음과 같은 위기사건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조지연, 1989), 여성노인이 타인의 슬픔에 대해, 사후 신체에 대한 결과나 임종고통에 대해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성노인은 계획이나 사업이 미결되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끼므로(Diggory and Rothman, 1969, 최외선, 2007 재인용) 여성노인의 죽음불안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한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별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연구(장인순·김수미, 2002)도 있다.

김태현·손양숙(1984)은 노인의 죽음에 관한 태도에 대해, 상류층노인은 죽음이 모든 것의 단절이라 생각하여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하류층노인은 현실의 당면문제인 생계의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여겨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과 죽음의 태도에서, 경제수준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죽음불안이 낮다는 연구(박윤자, 2008; 김경희 외, 2010)가 있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도가 높다는 연구(김태현·손

양숙, 1984)도 있으며, 경제수준에 불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죽음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최희선, 2007; 김연숙·김지미, 2009)도 있다. 이외에도 죽음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령(서혜경, 1990; 안황란, 1999), 동거(김태현·손양숙, 1984; 안황란, 1999; 김연숙·김지미, 2009; 김지현·민경환, 2010), 교육수준(서혜경, 1990; 안황란, 1999; 권오균, 2008; 문남숙·남기민, 2008), 건강수준(서혜경, 1990; 안황란, 1999; 한영란, 2007; 권오균, 2008), 종교(김태현·손양숙, 1984; 서혜경, 1990; 김경희 외, 2010; 김지현·민경환, 2010), 삶의 만족도(안황란, 1999), 자아통합감(권오균, 2008; 문남숙·남기민, 2008; 김지현·민경환, 2010)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죽음의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는 노인집단 내의 사회계층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이라는 고려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빈곤여성노인이 처한 삶 속에서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와 태도를 심도 깊게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가 상이한 것이 많아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고 빈곤여성노인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해 한계를 가진다.

빈곤여성노인의 삶은 존중받지 못한 삶, 결혼의 단절, 불안정한 사회적 노동, 경제적 통제권 결핍과 의존, 평생 동안의 양육과 보호노동, 그리고 건강문제와 여생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난다(최희경, 2005). 빈곤여성노인은 가족관계에서 받는 사적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편이다(안진, 2003). 따라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이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살아온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느끼고 인식한 죽음과 그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충실히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계층별 세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마련에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고, 또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빈곤여성노인들의 관점에서 폭넓은 차원의 죽음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연구의 의도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 3.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과 모집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시 관계한 여성참여자 9명과 새로 발굴한 참여자 1명(을<sup>1)</sup>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참여자들은 기준표본추출을 사용하여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를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연령 및 주거유형(일반주택, 노인의 집, 영구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였고 죽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1) 새로운 참여자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시 남성노인의 아내로서 연구과정 및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왔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접, 현장일지, 복지관의 연구참여자 관련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된 자료수집방법인 심층면접은 2010년 2월에서 3월 초순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횟수는 1회에서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죽음에 대한 구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중단하였다. 면접시간은 1회에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심층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디지털레코더를 사용하여 녹음되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사하였다. 주된 질문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었다.

자료분석방법은 연구자가 죽음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견지하면서 Strauss와 Corbin(1990)이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 자료의 코딩방법인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은 녹취록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중심주제를 찾으면 다시 이 주제를 견지하면서 자료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주제들을 발견해낸다. 이 과정은 자료 속에서 도출되는 중심주제와 주제들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다듬어가는 방법으로 주제발견에 유용하다(유태균 역, 2001: 152).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심층면접 녹취록을 여러 번 정독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자료에서 찾아 의미화하였고, 다시 분류된 의미들을 죽음의 맥락에서 재검토하여 그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주제를 찾아내어 추상화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죽음의 접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죽고 난후의 장례절차, 좋은 죽음의 의미 등 주제 간의 의미와 관계를 중심으로 주제와 상위주제를 도출한 내용을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3)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에는 연구목적에 대해 밝히기,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비밀보장, 거부권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는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새롭게 진행될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연구참여동의를 통해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비밀보장, 거부권, 녹음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았다. 연구자가 참여동의서의 내용을 한 줄씩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고지된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신분과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의 거부권이 있음을 알렸으며, 디지털레코더를 보여주면서 면접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행과정에서 윤리적 고려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엄격성은 Lincoln와 Guba(1985: 328)가 제시한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통해 확보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신빙성(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그리고 확증성(confirmability)이었다. 첫째, 신빙성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확보될 수 있었다. 먼저, 장기간 관계유지(prolonged engagement)는 연구자가 2년 전 박사학위논문을 쓰면서 맺은 인연을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어서 진실되고 심층적인 면접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삼각측정(triangulation)은 참여자들과 관련된 복지관의 상담일지 및 복지서비스 기록, 현장일지, 면접 등을 통해 자료의 출처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복지관의 상담일지 및 복지서비스 기록을 통해 참여자들의 가족력, 건강상태, 생활상의 어려움 등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참조하였고, 현장일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죽음태도를 의미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며, 면접 자료를 통해서도 죽음태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분석결과는 참여자의 확인과정(member checking)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참여자 1, 2)하거나 전화통화(참여자 3)를 해 분석결과를 천천히 읽어준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맞다', '그렇다'라고 동의를 하였고, 또한 특정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분석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적용성은 연구자가 진술이 포화되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반복해서 의미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었다. 셋째, 의존성은 참여자의 녹음내용, 녹취록, 분석 메모 등을 남겨 감사(auditing)할 수 있도록 하여 확보될 수 있었다. 넷째, 확증성은 연구자가 면접 전에 참여자에 대한 죽음의 선이해를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삶을 살아서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죽음불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연구자의 선이해를 점검하기 위해 면접과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선이해를 명확히 하고 현장일지 등을 활용해 선이해와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행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67세에서 85세까지 분포하고 있다. 주거유형은 일반주택, 노인의 집, 영구임대 아파트에 각각 3명, 2명, 5명이었다. 거주형태는 독거가 4명, 노인의 집의 노인와의 동거가 2명, 자식이 나 손자, 배우자와의 동거가 4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여부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가 5명<sup>2)</sup>, 자식이 있

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빈곤여성노인과는 달리 자식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자식이 없는 이유는 자식의 사망(2명), 불임(2명), 짧은 결혼생활과 배우자의 사망(1명) 등이었다.

는 경우는 5명이었다. 건강상태는 모든 참여자들이 만성질환이나 특정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참여자 모두가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 가톨릭, 불교가 각각 4명, 3명, 3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주거유형	거주형태	자식여부	건강상태	종교
1	70	일반주택	독거	1녀	만성관절염, 위염, 안질환	불교
2	85	일반주택	독거	1남1녀	만성관절염, 기관지염	불교
3	69	일반주택	독거	1남	복강경수술 후 회복단계	가톨릭
4	83	노인의집	동거(노인의집)	없음	만성 요통, 관절염	가톨릭
5	77	노인의집	동거(노인의집)	없음	백내장, 신경통	기독교
6	77	임대아파트	동거(손자)	없음	만성 요통	기독교
7	83	임대아파트	동거(손자)	1남2녀	만성관절염	불교
8	83	임대아파트	동거(자식)	1남(장애인)	만성 요통	기독교
9	70	임대아파트	독거	없음	유방암4번수술 후 항암치료중	기독교
10	67	임대아파트	동거(부부)	없음	만성 관절염	가톨릭

## 2)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상위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의미를 통해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대주제인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나’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상위주제	주제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기댈 대가 없음
	지병으로 인한 고통
	후회스런 삶
	삶의 미련이 없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삶의 순리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믿고 있는 장례준비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는 장례절차
	최후의 보루, 사회복지관련기관
	편안한 죽음을 지원하는 종교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죽고 싶음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타인을 위한 배려증가



### (1)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참여자들은 현재의 삶이 마냥 즐겁고 유쾌하지 않다. 이들은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는 등의 '잘 산다'고 하는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회적 지지망이 대부분 결핍되어 있고, 노년기 이전부터 혹사시킨 육체에 깃든 지병의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시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으며, 후회스런 삶을 느끼며,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아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다.

#### ① 기댈 데가 없음

한국사회에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은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식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참여자 4, 5, 6, 9, 10). 부계혈통 중심의 유교문화에서 여성노인인 참여자들에게 자식은 “나를 지탱해 주는 울타리이다”이라고 여기므로(참여자 6, 9), 자식이 없다는 것은 노년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삶의 안식처가 없다는 것과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두 참여자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자식이 없는 경우와 살면서 자식을 잃은 경우에 개인이 가지는 경험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식이 없어서 시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참여자 9는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해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긴다. 그녀는 같이 살던 남편과 3년 전에 사별하고 생긴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식이 없어서 삶이 외롭고 힘겹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6은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가계를 책임지고 살아왔지만 성인이 된 자식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마음의 지지대를 상실하였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마음을 그녀는 “자식이 없으니깐 신랑은 죽어도 그렇게 애통하고 가슴이 막 쓰리도록은 그렇게는 안 하대요. 자식은 죽으니깐 그렇게 애통하고 가슴이 뭐라 할까 가위로 난도질하는 것 같고, 자식을 안 앞세운 사람은 그런 심정을 모른다 말어요”라고 진술해 절박한 가슴 아픔을 드러냈다.

혼자 외롭게, 여자로서 자식을 하나 못 낳아 봤으니깐. 그것도 죄지. 그것도 죄야.[...] 옆에서 딸이라도 있으면 와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죽이라도 꿰어주고 할건데.(참여자 9)

남편도 자식도 먼저 갔부재(갔어)<sup>3)</sup>. 일 년 내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정이 있어서 갈 데가 있습니까? 딸이 있어서 딸네집에 갑니까? [...] 어디 데려다 놓아도 찾지도 못해요. 안 가봤으니깐. 그래요. 그러니, 사는 것이 뭐 누가 오면 반갑고 그런 것이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깐. 하루종일 내 혼자이고.(참여자 6)

#### ② 지병으로 인한 고통

모든 참여자들은 지병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이 빈곤남성노인보다 만성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을(김혜련 외, 2004: 147) 통해 많은 빈곤여성노인들이 일상적인 통증을 겪고 있음을 알

3) 참여자들의 사투리는 해당하는 말 다음의 괄호 속에 표준어로 제시하였다.

수 있다. 빈곤여성노인인 참여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대부분 만성질환인 요통과 관절염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죽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병은 연령에 관계없이 죽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젊은 노인(young old)에 속하는 참여자 10은 온몸이 다 아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나 적절한 약이 없어 캐유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적인 통증이 힘겹다. 참여자 4는 고령인데다가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서 근육이 위축되어 기능손상을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심한 통증으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신경을 쓰니깐 모든 병이 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프다. 병원에 가면 약도 없다. 그러니 사는 것이 그렇지. [...] 하도 아픈 데가 많아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참여자 10).

앉아서 몸이 아프면 자연히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 견디도록 아프니깐. 다리에 쥐가 나서 그래. 다리에 쥐가 나고 이 쥐나는데 무슨 먹는 약을 해 먹으면 되는지 알고 싶다.(참여자 4)

또한 지병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약이 몇몇 참여자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현실도피 차원에서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네 번의 유방암수술을 한 70세의 참여자 9는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너무 독하여 부작용이 있지만 살기 위해서는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당뇨병 등으로 인해 또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참여자 1은 연구자가 면접하는 과정에도 20분 간격으로 신경과, 안과, 내과의 약을 번갈아 가면서 먹었다. 그녀는 약이 병을 만든다고 생각할 만큼 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도 그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몸이 아프니깐 다 잊어 부고(잊어 버리고)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나이도 있고 하니 약에 후달리재(체력이 부족해). 영양가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당뇨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 자꾸 나이드니 병이 생겨. 손도 시꺼멓고, 얼마나 약이 독한데(참여자 9)

나는 첫째 약을 많이 먹으니깐 속이 안 좋다. 병을 나으려고 약 먹는 데 나는 약 때문에 돌아부꼈다(너무 힘들다). 내 혼자 조정거리고(중얼거리고) 있어요. (약봉지 두 개를 보여주며) 두 달 치를 이만치 가져옵니다. 이 약을 안 먹고 죽으면 소원이다 싶어요.(참여자 1)

### ③ 후회스런 삶

Erickson(1997: 61-63)은 심리사회발달론에서 노년기를 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제시하였다.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에 과거와 현재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궁극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어 다가올 죽음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절망감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후회스럽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죽음 앞에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글을 모르는 참여자 4는 성당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다. 그러나 성당에서는 교리와 찬송가 등 한글을 알아야 함께 할 수 있는데 한글을 몰라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정부나 성당 등으로부터 공짜로 얻어먹는 것이 싫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수용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

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스러움을 가진다. 참여자 5는 자식이 없어 조카들의 엄마 역할을 자청해서 조카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았다. 그러나 최근 자신이 늙고 병들자 자신이 조카들에게 의지할까봐 먼저 조카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짐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조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들에게 배신당하였고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지도 못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스러움이 가슴 깊이 배여 있었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한때도 좀 이래 편하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억울하긴 억울하지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미련이 남나.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죽으면 죽는 것이지.”로 진술해 후회스런 삶을 느끼고 희망이 없고 절망감 속에서 죽음을 대하고 있었다.

사회에서는 남한테 크게 도움받고 꽤 끼치는 것이 없는데 성당에서 내가 꽤를 많이 끼치지. 내가 해놓은 일을 다 하고 싶은 데.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것이 마음이 불안해.(참여자 4)

나는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내 일신을 생각해서 안 살고 저거(조카들)를 위해 내 일신을 던져놓고 헌신적으로 고생해서 왔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알아줘요.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그것은 다 그렇다고. 그런 것은 자식이라도 전부 그렇게 생각해. 부모 공을 모른다고. 잘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참, 나는 한심스럽게 살았구나! 싫어요.(참여자 5)

#### ④ 삶의 미련이 없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잘 키워서 잘 사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어 궁핍해서 지금보다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내일도 오늘처럼 별다른 희망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 다음에 진술한 참여자들은 삶에서 가치있는 것을 재산과 자식으로 여기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만족스럽게 충족되지 않아 삶의 미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은 참여자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미련없이 내려놓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 모은 가산을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모두 탕진해버린 참여자 2는 사글세방에 혼자 지내고 있고, 재산이나 자식 등 자신이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삶에 미련도 두지 않고 죽음도 꺼려하지 않는다. 참여자 4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고통이었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는 반대로 아무 것도 없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어 홀가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거의 없어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야꼬?(어떻게 하노),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런 것은 없어. 아까울 것이 없는데. 보배덩어리가 있어야 아깝지! 안 그래? 재산이 많던지, 자식들이 잘 살아서 호강을 하면 한 해 더 살고 싶지만 그렇지만 난 그런 생각없어요. 아무도 날 십 원 한 장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깐. (참여자 2)

아무도 없어서 걱정도 없어. 돈을 많이 두어서 돈을 못 받아서 걱정이야. 아들딸을 두어서 시집, 장 가보낼 것이 걱정이 있나 아무 걱정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라.(참여자 4)

## (2)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참여자들은 죽음을 삶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병과 현실의 고통으로 죽으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편할 것이라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 ① 삶의 순리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12월에 복강경 수술을 받은 참여자 3은 자신을 가을에 지는 낙엽으로 비유하면서 죽음에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녀는 자궁질환이 암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좀 더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죽음을 자기 삶의 마지막으로 인식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적응하고 삶을 만족하면서 차분하게 죽음을 수용한다. 85세인 참여자는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살다보니깐 세상살이가 세월이 흐르니깐 점점 낙엽이 지고 있잖아요. 내가 갈 곳이 정해져 가고 있구나. 하루하루 내 갈 길을 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이라도 가야지. 나는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하겠어? 저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요.(참여자 3).

내가 당연히 가야한다는 길이라. 여기 더 살았으면 좋지만 능력도 안 되고 그 만큼 살았으면 가야 한다는 뜻이라.(참여자 2)

### ②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낌

참여자들은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가족의 부재와 질병 등과 같은 삶의 힘겨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죽음이라 여기고 죽음에 대한 인식은 편안함으로 나타냈다. 참여자 6은 “사는 것은 고통이다”이라고 여기고 이승에서 살면 살수록 고생스럽다고 여기고 종교교리에 따라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옆으로 가면 편안한 세상이 있다고 믿는다. 참여자 3은 삶의 회로에락이 자신에게 긍정적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죽음을 통해 편안한 삶을 구하고 있다. 참여자 8은 노화와 질병이 진행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으므로 죽으면 아픈 몸의 고통을 받지 않아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맨날 고생이지. 그래도 와 죽으면 영혼이라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편하잖아. 고생고생. 하루라도 살면 하루고생, 이를 살면 이틀고생.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참여자 6)

죽는 것은 자신의 회로에락이 많잖아. 삶의 회로에락을 겪지 않고 자기가 눈을 감는다면 고통을 다 떨쳐버리고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지.(참여자 3)

죽으면 편하지! 삶은 그 생각밖에 없어.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싫고,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 싶다. 몸은 늙어 자꾸 약해지니, 아프니깐 힘들고, 죽으면 편하지 싶어.(참여자 8)

### ③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몇몇 참여자들은 사는 것에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수록 몸에 아픈 곳이 더 생겨서 무언가를 할 수 없으므로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여겼다. 참여자 9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재미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어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겨 죽음을 꺼리는 마음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10은 노화와 함께 경험하는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므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심정에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내 죽었다고 원통해 할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눈 감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내 몸 가면 그뿐이지, 새끼 있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몰라, 다른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하지만 나는 안 두려워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한번은 가는 건데[...]몸도 아프고 재미있는 데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참여자 9)

누렇지 않은 것이 소화가 안 되서 난리긋을 피우고 오늘 가서 내시경하고 그랬다. 그래 놓니깐 죽는 것은 겁이 안나!(참여자 10)

### (3) 믿고 있는 장례준비

참여자들은 부계혈연 중심의 장례문화 속에서 장례절차를 책임져 줄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준비하려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례절차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 장례비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절차에 걱정스러움을 드러냈다. 장례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일부의 참여자들은 장제급여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른 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적지원체계를 통한 장제급여를 알고 있었고, 민간지원체계를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종교기관의 장례절차 등을 통해 장례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있어 동사무소는 현재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장제급여로 책임져 준다. 사회복지시설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동할 수 없을 때 식사에서 장례절차까지 다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곳으로 믿고 있었다. 또한 종교기관도 장례절차의 준비 및 심리정서적 부담을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가족이 없는 참여자들은 혼자 준비해야 하는 장례절차의 고달픔을 해소할 수 있었다.

#### ①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는 장례절차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례의식을 치러줄 가족이 없어서 속상해 하였고, 또한 가족이 없어 자신의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장례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잘되지 않아 장례절차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표현했다. 참여자 1은 시신을 화장해서 그 가루를 찻발에 묻혀 산의 새나 짐승이 먹도록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해 줄 자식이 없어 한탄스러워 하였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자식이 없다는 것에 속상해 하였다. 자식이 없는 참여자 5는 자신이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시신마저도 “생선토막처럼 버릴 수 없잖아요”의 진술에서 생선토막처럼 함부로 다루어질까봐 두려워하

고 있었다. 그녀는 친인척도 못 살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장례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 하였다. 한편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제공되는 장제급여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사후 장례절차에 대해 더욱 걱정을 하고 있었다.

찰밥을 한 되를 해서 떡하듯이 가루를 묻쳐서 깨끗한 앞산이나 바위나 돌에 얹어 놓고 하면 신선들이 그것을 먹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대요. 누가 그것을 해 주는데, 자기집 음식도 안 해 먹는데, 누가 찰밥해서 그렇게 하겠노?(참여자 1)

걱정이 되는 것이 내가 죽고 나서도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한 평생 처리하는 것이 제일 힘이 든다 면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죽으면 나도 돈이 드는데, 내 주위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만 죽고 나서도 생선포막처럼 버릴 수 없잖아요. 장례식 하려면 돈이 많이 들대요. 우리도 봤지만 내가 돈을 준비해 놓아야 안 하겠나! 항상 그런 생각이야(참여자 5)

## ② 최후의 보루, 사회복지관련기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사후 장례절차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들은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다른 가족들에게 부고(訃告)를 전달할 수 있고, 시신은 화장 장례절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후 시신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이었다. 빈민지역의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참여자 1은 혼자 살다가 죽더라도 이웃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멀리 사는 딸에게 기별이 가리라 생각하고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 참여자 6은 자녀는 없지만 장례절차를 동사무소가 해 준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사후에 대한 불안감이 적다.

내같은 경우에 자다가 죽는다고 하자. 내 죽음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동네사람이 동사(동사무소) 가서 알리고 할 것 아닙니까? 딸한테 연락이 가겠지.(참여자 1)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죽으면 그저,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화장해 줄런지, 매장할런지, 아무도 없다보니. 자녀들이 없다보니 동사무소에서 해준다하대.(참여자 6)

사적 지원체계가 해체된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줄어들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자신의 몸을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병든 몸을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든 몸의 중착지로 사회복지시설을 선택하려 하였다. 거동이 불편해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의식주와 장례절차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반면에 자신이 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참여자 4는 스스로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안 되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기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몸을 의탁하려 한다. 그러나 개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참여자 5는 이전에 함께 지내던 수급자가 양로원에 입소한 경우를 보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회복지시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

도 건강할 때 입소하여 시설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의지할 곳이 없고 거동 불편한 노인이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마지막 삶의 끝자락을 부여잡을 수 있다고 믿는 의지처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려고 한 참여자 4와 5는 자신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례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못 해 먹으면 양로원에 가거나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거든. 뒷치덕거리혜(돌봐) 줄 사람이 없어.[...] 내 손으로 못 끌어먹게 되면 양로원에 가면 통장 맡기면 되고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 해서 안 좋다 그지. 내 마음대로 못해서 안 좋다.(참여자 4)

우리가 많이 아프던가 하면 양로원에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양로원에라도 가야 하지요. 똥을 싸놓아도 모르는 사람도 양로원에 보내대요. 그런데 그런 이는 양로원에 가도 싫어하지 싶고 내가 정 안되겠다고 싶으면 내가 내발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예요. 양로원에 가면 그곳에서 (시신을) 처리해주는 것 같아요. 전에 같이 있던 할매가 양로원에 갔는데 (시신을) 데리고 갈려면 데리고 가고, 안 그러면 그 처지가 안 되면 그곳에서 장례를 해 주는 것 같애.(참여자 5)

### ③ 편안한 죽음을 지원하는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종교는 자신이 늙었을 때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임박한 죽음을 대면하도록 돕고, 생의 유의미성과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견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상실감을 수용할 수 있게 하며, 노년기에 잠재해 있는 보상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Barron, 1961, 최신타·김모란 공역, 1998: 353-354 재인용). 장례절차가 부계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교문화에서 배우자와 자식이 없거나 그 역할이 미약한 빈곤여성노인인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믿음과 장례절차까지도 가족이 아닌 종교기관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종교적 죽음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려 하며, 자구책으로 가족이 없어서 허전하고 외로울 수 있는 장례절차에 같은 종교인들과 신도들이 참석하여 기도해줌으로써 편히 이승을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50대에 불경으로 한글을 배웠다는 절실한 불교신자인 참여자 2는 부처님께 의지하여 모든 악업을 없앴으로써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기독교 신자인 참여자 6은 성경교리에 나온 대로 죽음을 믿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자식들을 모두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더욱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한다.

나는 불교라서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부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드리면 부처님 앞에 갈 때는 안 아프고 자는 잠에 가도록 그렇게 기도드려요. 내 업장을 사멸하고 내가 부처님 앞에 갈 때는 내 업장을 사멸하고 자는 잠에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요.(참여자 2)

교회 가면은 육체는 죽고 영은 살고, 영은 하늘나라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으로 만들었다고 하대요. [...] 나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깐 아무 데도 없으니깐 하나님뿐이깐 죽음복 타고 나서 그 사람 잘 죽었다고 해달고 합니다. (참여자 6)

자신이 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례급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참여자는 가족이 없더라도 시신의 형식적인 장례절차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보이지 않았고,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참여자들은 죽고 난 뒤에 교인들의 장례기도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 장례절차에 대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교회와 성당에 다니고 있는 참여자 9와 3은 죽고 난 뒤 장례절차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수급자라서 시신처리비용으로 장례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사망 소식을 종교기관에 알려주기만 하면 성직자와 교인들이 고인을 위한 기도나 3일장 등의 절차를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다. 참여자 4는 언젠가 행해질 자신의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관련 현금을 흔쾌히 기준액(만원)보다 더 내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수급자라서 동사무소에서 다 지원해주요. 동사(동사무소)에서 장례비 돈 다 나오고 교회에서 사람들 나오고(참여자 9)

내가 수급자이면서도 성당에 나가니깐 단체의 레지오를 하니깐 성당에 알려주기만 하면 다 도와줄 거고.(참여자 3)

제대회비는 병원에 가고 촛불쓰고 하는데 쓰는 돈이라. 그 돈은 우리에게 받아놓았다가 하는 거라.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초 사고 먹을 것 사고 하는 데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하는 거라. 우리는 설, 추석으로 두 번 만원을 낸다. 이번 설에는 2만원 냈다. 그런데 돈 안 내면 재미없어.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낸다.(참여자 4)

#### (4)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병이 나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거의 없는 참여자들은 ‘좋은 죽음’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죽는 것으로 여겼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평소에 타인을 잘 이해하고 좋은 언행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몇몇 가톨릭신자들은 시신을 기증하여 의학발전을 희망하면서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 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죽고 싶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노인이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빈곤노인의 경우는 돌봐주는 가족들에게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참여자들은 빈곤하면서 가족이 해체되어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아 온전히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죽어야 한다고 굳게 바라고 있다. 이러한 소망은 죽음과정에서의 강한 불안함으로 나타나 죽을 때까지도 거동할 수 있는 몸으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빨리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을 때가 내가 요만한 근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오줌똥 싸고 치매라도 걸리면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사람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그런 것 없을 때 가는 것이 요 정신가지고 요 눈



귀가지고 요 근력가지고 가는 것이 원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참여자 2)

내 발로 걸어 다니다가 내 손으로 밥해먹다가 죽으면 좋고, 누워 있으면 신체적으로 따분하게 되는 거라. 참 고생인거라. 죽는 것은 금세 죽는 것이 행복이다. 오래 시들까봐 걱정이지. 오래 시들면 방에 누워서 물도 한 모금 못 얻어 먹으면 안 되니깐.(참여자 4)

자식을 먼저 보내고 손자와 같이 살고 있는 참여자 7은 자신이 너무 오래 살아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없는 손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되므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그녀는 병 없이 온전히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어찌 할꼬! 자살이라도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자살을 할꼬? 너무 오래 살면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서 처바르면 누가 좋다고 해요. 내 속으로 자살이라도 해서 죽으면 되지. 자식(손자)들 애 먹어서 어떻게 하노!(참여자 7)

## ②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타인에 대한 배려 증가

참여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죽음을 위해 남에게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였고, 죽고 난 뒤에도 시신을 기증하여 산 사람을 위해 연구목적으로 사용해달라고 진술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5는 사는 동안 자신의 처지에서 경제적으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상대 방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죽을 때 다 되어가니 참 잘해야지. 동생도 한 번씩 말하거든요. “남한테 돈도 드리고 잘 해야 된다” 해요. 내야 가진 것 없으니 물질적으로 잘하지 못 하고 마음 속으로 남을 이해하고 잘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요.(참여자 5)

가톨릭 신자인 참여자 3과 참여자 10은 故 김수환추기경의 장기기증정신을 본받아 자신의 시신을 사회에 기증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시신이 화장되어 뿌러지는 것보다 자신의 지병이 연구대상으로 되는 것을 원하였고, 의학발전에 기여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

내 몸의 내부연구도 괜찮고, 나는 지금 쓸개가 없으니깐 병은 갑자기 오고 아마 누적되어 있겠지만 쓸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잖아. 사회에 내 자신을 환원함으로써 의술이 발전하면 좋지 않겠나!(참여자 3)

나는 기증을 해서 하도 무릎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깐, 연구를 좀 해가지고 책도 내고 그래 하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다.(참여자 10)

종합하면,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의 태도는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동사 무소와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기관의 장례절차를 믿으며, 자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죽고

싶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준비를 하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빈곤 여성노인들의 죽음의 의미는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한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삶에 대한 별 다른 기대가 없어서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들은 삶이 궁핍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없어서 살고는 있으나 삶에 별다른 미련을 두지 않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에게 빈곤은 삶의 의욕이나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인식이 죽음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또한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이들은 가족 내에서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지 않아 자신이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빈곤여성노인은 대부분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병의 강도가 삶 자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하였다. 늙어서 아프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은 노년기 이전에 불안정하고 고된 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노년기에 공격 부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최희경, 2005). 빈곤여성노인은 젊은 노인에서 고령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의 통증이 심하여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유교의 강한 남녀차별적인 규범 하에서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부계혈통 중심의 유교문화에서 빈곤여성노인은 '시집가서 자식을 못 낳아서' 또는 '자식을 먼저 저세상에 보내서' 자신이 원해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고 자식이 없는 경우가 빈번해서 부계혈통중심의 장례절차로 치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가족 중심의 사적 지원체계 아닌 사회적 공식적 지원체계를 통해 장례준비를 하려고 하였다. 빈곤여성노인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든든하게 여기는 사회보장은 동사무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제급여이었다. 사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이들에게 동사무소는 현재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 줄 중요한 의지처이었다. 그러나 빈곤여성노인들 중에서 장제급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들은 장례절차에 강한 불안감을 표출하였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장례비를 힘겹게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있었다. 한편, 빈곤여성노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의지처로서 거동이 불편할 때도 시신의 장례절차까지도 믿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가톨릭이나 개신

교를 믿는 빈곤여성노인은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사후에 종교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시신이 잘 다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다른 교인의 장례식참석, 장지따라가기, 고인을 위해 기도하기 등 자신이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여 살아 있는 동안에 미리 실천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이 썰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서 존엄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빈곤여성노인들은 혈연 중심의 관혼상제가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의 문화에서 가족 등 사적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 규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과 종교지원)를 통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빈곤여성노인들이 강하게 진술한 좋은 죽음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죽고 싶다'는 것이었다. 가족이 있으나 혼자 사는 여성노인도 자녀에게 폐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어머니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여겨(박기남, 2004) 죽음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빈곤여성노인은 아프면 돌봐 줄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간병사를 고용할 만큼의 돈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독거 여성노인보다 더 절실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죽어야 한다고 여겼다. 한편, 자신의 임종을 거동할 수 있는 심신으로 끝까지 지키려는 자세에서 강한 죽음불안을 읽을 수 있다. 죽음불안은 죽음이라는 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공포,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고길란·이영숙, 2008). 죽음불안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질병의 고통이 커지므로(장인순·김수미, 2002) 만성질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여성노인들은 죽음불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빈곤여성노인들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아플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여성노인이 처해진 상황에서 죽음을 존엄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여성노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삶의 희망이나 재미도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사회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빈곤여성노인의 여가문화육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촉진방안을 마련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제급여에 대한 홍보가 요청된다. 장제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급자와 모르고 있는 수급자 간에 장제절차에 대한 불안정도와 대처행동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장제급여를 알고 있는 빈곤여성노인은 자신이 죽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준다는 믿음이 있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에 모르고 있는 빈곤여성노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입소나 자신이 장례비를 준비하는 등 불안하고 힘겨운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주변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 그리고 독거노인 윈스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복지기관이 동참하여 수급자노인을 위한 장제관련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명확히 먼저 알려주고 빈곤여성노인이 궁금히 여기는 장제관련서비스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여성노인의 죽음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죽음불안 완화 대책으로는 죽음준비교육, 지속적인 종교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죽음준비교육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남은 삶을 만족스럽고 보람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죽음불안이나 공포를 해소하여 죽음을 평온히 수용하게 해 준다.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므로(조명옥, 1997), 죽음준비교육은 일방적인 강의나 시청각자료의 시청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빈곤여성노인들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와 태도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빈곤여성노인이 자신의 생을 개방하여 삶을 되짚어 정리할 수 있으므로 죽음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여성노인에게 죽음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지지활동인 종교활동은 삶의 의지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불안도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이 모두 종교가 있다는 사실에서 지역사회의 종교기관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내세관을 포함하는 죽음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분석이 필요하겠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계층을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는 작업도 유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오균. 2008. "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죽음불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27-50.
- 김경희 · 권혜진 · 최미혜 · 박윤자 · 김수강. 2010. "심리적 영적 요인이 재가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9(1): 96-105.
- 김기태. 1998. 『위기개입론(3판)』. 서울: 대왕사.
- 김미혜 · 권금주 · 임연옥. 2004.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195-213.
- 김지현 · 민경환. 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27.
- 김상우. 2005. 『죽음의 사회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김신미 · 이윤정 · 김순이. 2003. "노인과 성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95-110.
- 김연숙 · 김지미. 2009. "노인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죽음불안: 죽음불안의 세부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75-289.

- 김지현 · 민경환. 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대처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27.
- 김태현 · 손양숙. 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노년학』 4(1): 3-19.
- 김태현. 2007. 『노년학』. 파주: 교문사.
- 김혜련 · 강영호 · 윤강제 · 김창석. 2004.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남숙 · 남기민. 2008. “노인의 죽음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227-1248.
- 박기남.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독거 여성노인의 삶”. 『페미니즘연구』 4: 149-194.
- 박명선. 2002.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175-204.
- 박윤자. 2008. “재가노인의 죽음불안 요인 구조 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백학영. 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5-39.
- 법정. 2008. 『아름다운 마무리』. 서울: 문학의숲.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 서혜경. 1987.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노년학』 7: 39-58.
- 서혜경. 1990. “성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7(2): 89-102.
- 안진. 2003.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일상생활과 복지욕구: 목표 상동지역 빈곤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12: 85-110.
- 안향란. 1999. “노인의 죽음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개발”. 『정신간호학회지』 8(1): 44-68.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서울: 나남출판.
- 이은봉. 2000.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지영 · 이가옥. 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4(2): 193-215.
- 장인순 · 김수미. 2002.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4(1): 80-92.
- 정옥분 역. 1992. 『인간발달 II: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Papalia, D. E., Olds, S. W., and Feldman, R. D. 1989. *Human Development*. 서울: 교육과학사.
- 조명옥. 1997.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 사례연구”. 『한국노년학』 17(3): 1-35.
- 조지연. 1989.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서울 거주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25.
- 최신덕 · 김모란 공역. 1998. 『노년사회학』. Harris, D. K. *Sociology of Aging*. 서울: 하나의학사.
- 최외선. 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4): 755-773.
- 최희경. 2005.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 한영란. 2007.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죽음에 대한 공포간의 관계”. 제32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40-41.
- DePaola, S. J., Griffin, M., Young, J. R., and Neimeyer, R. A. 2003.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Death Studies* 27:

335-354.

- Erickson, E. H.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Madnawat, A. V., and Kachhawa, P. S. 2007. "Age, gender, and living circumstances: Discriminating older adults on death anxiety". *Death Studies* 31: 763-769.
- Atchley, R. C. and Barusch, A. S. 2004. *Social forces & aging*(10th ed). Belmont, CA : Wadsworth Thomson Learning.
- Cicirelli, V. G. 2002. *Older adults' views on deat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Hookman, N. R. and Kiyak, H.A. 2002. *Social gerontology*(6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Kastenbaum, R. J. 2007.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9th ed.), Boston, MA : Pearson Allyn and Bacon.
- Leichtentritt, R. D. and Rettig, K. D. 1999. "Meanings and attitudes toward end-of-life preferences in Israel". *Death Studies* 23(4): 323-358.
- Leming, M. R. and Dickinson, G. E. 2007.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6th ed.), Belmont, CA : Thomson Wadsworth.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How do Poor Elderly Females Recognize and Prepare for Death? - With Focus on Attitudes of Elderly Female Beneficiaries Towards Death -

Chang, Kyung-Eun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To provide a satisfactory life for the elderly females who are the most impoverished among the elderly social strata, this study is geared towards, and focused on, the exploration on their attitudes towards death.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ith females aged 65 and over, who are officially classified as the beneficiary of national fundamental livelihood security, have been conducted. Then, the results from these interviews have been compiled and analyz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attitudes of the destitute elderly females towards death are categorized into several themes, such as 'Feeling close to the death through a hard life', 'Positive acceptance of the death', 'Relying on funeral services from government and religious organization', 'Hoping for a death with dignity'. The attitudes of death means to them that 'they can get out of a hard life', and elderly female beneficiaries were positive in their acceptance of this meaning. Those who could obtain funeral services as a part of assistance from government and a religious organization did not feel stressful about their funeral arrangements. However, there were individuals who didn't know if their funeral services would be covered by the government. They were unsure if a funeral service would be held for them, or they would have nobody to hold a funeral for them. Accordingly, they were worried about that. The poor elderly females were unhealthy and indigent, and so, they had death anxiety. Therefore, based on the study results above, some ideas regarding elderly welfare are proposed to enable poor elderly females to face their deaths with dignity.

Key words: poor elderly female, death attitudes.

[논문 접수일 : 10. 06. 18, 심사일 : 10. 07. 20, 게재 확정일 : 10. 09. 24]